

# 지역경제적 특성 및 생애주기적 특성이 어머니의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시데이터와 거시데이터 결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강현구<sup>1)</sup> 심도현<sup>2)</sup> 박윤현<sup>3)</sup> 이순형<sup>4)</sup>

## 요약

이 연구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적 특성 외에,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러 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OECD국가 중 중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에 있어, 출산율 제고정책은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그런데 출산여부 및 자녀수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작용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해당 지역 일자리의 양과 질 같은 지역경제적 특성도 고려하고, 연령변화에 따른 차이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데이터, 그리고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거시적 통계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기존의 자녀가 만1세인 경우 분석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도구적·정서적 가치가 높고 거주지역의 어머니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높아졌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모중심적 가치관이 높고 지역별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자녀가 만5세가 된 경우 지역경제적 특성은 영향을 없는 반면, 기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양육스트레스 등 미시적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출산여성의 직장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적으로는 소득수준과 출산지원여건이 양호한 수도권보다 지방권에 혜택을 늘리며,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양육부담을 줄이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제어:** 출산율 정책, 지역경제적 특성, 일-가정 양립, 거시·미시 변수 결합연구

\* 이 논문은 제5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대학원연구자 부문 수상작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 1) 서울대학교 유아교육최고위과정 책임연구원
- 2)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 4)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론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안으로 크게 대두되었다. 출산의 문제는 미래 세대의 육성이라는 차원 외에도 현재 근로세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의 토대와 연결되는 점, 노년층과 사회적 약자층을 부양하는 사회적 부담비중의 증감에 직결되는 점(이삼식 외, 2011)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에 적정 인구 및 출산율의 유지는 안정된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통계청(2014)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여성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평균 2.56명, 그리고 OECD 34개국의 평균 출산율인 1.74명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여성합계출산율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 2.1명을 지나 2005년 최저점 1.08명을 기록했다. 총 출생아수의 경우에도 2013년 총 출생아 수는 43만 6천 6백 명으로 전년대비 9.9% 감소했다.

유럽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기에 저출산 문제는 향후 한국사회 유지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관련된 요인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김승권, 2004; 박석희, 2007; 방경숙, 2007). 정부 또한 최근 수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육아지원기관의 양과 질의 확보, 육아지원기관이용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2011년 이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를 확정하면서 결혼, 출산,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정미라·홍소영·박수경, 2013). 이와 같은 정책노력들은 가시적 투입요인의 변화를 통해 출산의도를 증진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정책 연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고려가 더 필요하다.

첫째, 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특히 ‘지역’과 같은 거시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출산여부 및 자녀수의 결정은 다양한 원인과 현상이 서로 맞물려 작용한다(박석희, 2007). 따라서 각 가정 구성원과 관련된 개인적 가치관이나 인식 등 미시적 요인 외에 거시적 환경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거주지역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합리적 인간상’에 대한 재조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근대 이래 ‘합리적 개인은 획득가능한

모든 정보들에 기반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이른바 '합리주의적' 믿음이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기본 전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믿음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과연 모든 정보의 획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제는 제한적 합리주의 모형, 점증주의 모형 등과 같은 대안적 결정모형이 제시되면서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수정이 시도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Kahneman과 Tversky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통해 불확실성 상황 아래에서 개인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지를 밝힌 바 있고(Kahneman & Tversky, 1979), "사람들은 객관적 자료보다는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느낌, 주변상황 등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sup>5)</sup>"고 주장하였다(Kahneman & Tversky, 1982). 그렇게 본다면, 출산과 관련해 어머니가 내리는 판단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 요소 뿐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환경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속출산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지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이 여성에게 일 자리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지 혹은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지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과 관련된 전자(前者)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의 양(量)과 연관 있다면, 지역별 평균소득과 관련된 후자(後者)는 일자리의 질(質)과 연관이 있다. 출산 후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일을 하는 지역에 사는 어머니에게는, 출산 후 취업의 용이성 여부가 후속출산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표 1>에서와 같이 세종시(1.435)와 전남(1.518), 충남(1.442), 제주(1.427) 등에 비해 서울(0.968)과 경기도(1.226) 등 수도권의 합계출산률이 낮은 것처럼 지역별 출산률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대상자의 집합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sup>6)</sup>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책(policy)은 개별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형성·집행되지만, 불특정 개개인을 전제로 한 분산화된 정책보다는 집합적 특성에 따라 분류가능한 몇 개의 대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화된 처방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일 수 있다. 이 때 집합적 특성을 엄밀한 분석과 과학적 검증에 의해 판별할 수 있다면, 정책 타당성을 더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것에 낭비되는 행정여력을 보다 효과적인 곳으로 전환시킬 수

5) 이처럼 고정관념 내지 주변상황에 기초해 내려진 추론적 판단을 휴리스틱(heuristic)이라 한다.

6) 엄밀히 말해서, 효과성이란 정책이 애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결과 자체에 관한 것이고, 효율성이란 효과 달성을 위해 투입된 것과 산출된 것 사이의 비율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있다. 따라서 출산율과 관련한 집단적 특성의 규명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셋째, 부모와 자녀의 성장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하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연령,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이 변화하면서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 등도 함께 변화할 수 있다. 효과적인 출산율 정책을 모색하려면 생애주기에 따른 관련 요인의 변화 및 그 원인을 추적, 비교하며 함께 살펴봐야 한다.

〈표 1〉 지역별 합계출산률 (2013년)

| 특별·광역시 지역<br>(총 8개) |                  | 도 지역<br>(총 9개) |            |
|---------------------|------------------|----------------|------------|
| 지역별                 | 합계출산률 (순위)       | 지역별            | 합계출산률 (순위) |
| 서울                  | 0.968 (8)        | 경기             | 1.226 (9)  |
| 부산                  | 1.049 (7)        | 강원             | 1.249 (8)  |
| 대구                  | 1.127 (6)        | 충북             | 1.365 (6)  |
| 인천                  | 1.195 (4)        | 충남             | 1.442 (2)  |
| 광주                  | 1.170 (5)        | 전북             | 1.320 (7)  |
| 대전                  | 1.234 (3)        | 전남             | 1.518 (1)  |
| 울산                  | 1.391 (2)        | 경북             | 1.379 (4)  |
| <b>세종</b>           | <b>1.435 (1)</b> | 경남             | 1.367 (5)  |
|                     |                  | 제주             | 1.427 (3)  |

출처: 2013년 출생 통계 (통계청)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출산율 정책 모색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출산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후속출산 의도’(정혜은·진미정, 2008)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기존의 연구들이 살펴본 미시적 요인 이외에 거시적인 지역경제적 특성이 후속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목한 ‘가정환경’이나 ‘직장환경’ 외에, ‘지역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개선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후속출산 의도 사이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변수와 지역 특성 관련 변수만을 투입해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간명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과 가정의 미시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이 밝혀졌고, 지역별로 주요 미시적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6개 광역지역권별로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거론된 주요 미시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 집단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출산경험이 없는 가정의 ‘첫 아이 출산의도’가 아니라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의 ‘후속 출산 의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첫 출산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며 일반적으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적은 반면, 둘째 이하 자녀의 출산은 사회적 기대나 압력이 적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서 갖게 되는 주관적 경험에 따른 개인 선택의 영향이 더 크다(이정원, 2007; 정혜은·진미정, 2008). 김정석(2007)이 “부모는 첫 출산에 비해 두 번째 출산부터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출산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기존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비록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명에 못 미치고 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2명의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명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력이 여전히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자 할 때와 비교해 변수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후속출산 의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아동패널연구의 2009년(제2차년도) 데이터와 2012년(제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해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자녀가 만1세일 때(영아기 시점)와 만5세일 때(유아기, 취학을 앞둔 시점)를 비교하는 것은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후속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가족공동체 차원의 생애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후속출산의도와 사회경제적 특성, 문화적 가치관, 양육실태 인식, 지역 경제적 특성 사이의 전반적 양상은 어떠하며, 기존의 자녀수나 자녀의 연령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특히 지역경제적 특성은 후속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은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은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첫 자녀 출산과 후속출산

출산은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 삶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한 가치관 문제 뿐 아니라, 자녀를 가져본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Becker, 1992). 따라서 기혼가정에서는 첫 자녀 출산 경험이 둘째 이후의 자녀 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첫 자녀의 출산은 “정상적인 부부는 적어도 아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normative parental imperative*)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라면 첫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편이다. 이와 달리 첫 자녀 출산 후에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습 및 압력의 부담감이 감소하지만, 대신 첫째 자녀 출생 후 삶의 질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이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첫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경험,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고려는 둘째 혹은 그 이후의 자녀 출산 여부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Presser, 2001). 더불어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 역시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양육부담 문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정원, 2007).

### 2. 후속출산과 관련된 미시적 변수 - 사회경제적, 문화적 가치관, 양육실태 인식 변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특히 미시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김종백·유은영, 2010; 이정민·최고은, 2010; 정미라·홍소영·박수경, 2013; 최윤경·장영은, 2010). 이러한 미시적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사회경제적 특성, 문화적 가치관 특성, 양육관련 인식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후속출산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수

먼저 어머니의 연령이나 경제활동 참여여부, 가구의 소득수준, 자녀양육비 부담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 왔다. Leibenstein(1974)이 한 사회의 출산력은 경제발전과 함께 동반되는 거시적·미시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사회경제적 변수에 관심을 갖고 연

구를 진행했다. Robinson(1997)은 출산 분석에 있어 기존의 사회학적·심리학적 접근법을 통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희연(2003) 또한 출산 행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한국의 출산율과 관련해, 1997년 말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이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저하시켰다거나(김승권, 2004), 30대 이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초혼 연령을 증가시키면서 첫 출산과 후속출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현숙, 2007; 민현주·김은지, 2011; 손승영, 2007; 신혜원·최명섭·김의준, 2009)는 등 출산율과 취업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후속출산 계획은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도남희, 2011).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관련해서도,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지가 긍정적이고 기대자녀수도 많다는 결과도 있지만(공선영, 2006; 류연구, 2005; 안윤숙·이상호, 2010; 이미란, 2010), 반대로 소득수준 향상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신연수, 2003). 한편, 최근에는 취업률이나 가구소득 외에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이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도남희(2011)의 연구에서는 가구 총지출이나 아동 총 소비성 지출이 많을수록 후속출산 계획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요한(2014)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기회비용의 계산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하여 아동패널연구 데이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여부, 가구소득 및 양육비부담비율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 후속출산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관 변수

문화적가치관 변수 역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규범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출산의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었지만, 이와 관련해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은 독특한 문화적 가치로서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연구가 있지만(조복희·현온강, 1994). 최근 서구적인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점차 어머니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특정한 성(gender)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한국사회에서도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최은영, 2011). 또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해 온 한국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

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가치관이 후속출산 의도 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지만(권태환 외, 1997),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 효용감, 즉 ‘산출’에 대한 기대보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가치관, 즉 ‘투입’ 그 자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마미정, 2007).

따라서 문화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된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기대, 부모의 책임인식, 기대자녀의 성별 등에 대한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 후속출산과 관련된 양육실태 인식 변수

양육실태 인식과 관련된 요인 역시 후속출산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양육참여와 가사분담,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Sohn(2012)은 Belsky(1984)가 제시한 육아선택 결정요인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가족과 주변의 양육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신지현(2013)과 김선희(2014) 역시 남편이나 조부모, 친척 등의 양육 노력과 지원이 여성의 후속출산 부담 완화 및 재출산 의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부부 사이 관계의 안정성이나 관계의 질 역시 후속출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요한, 2014).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 인식과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등도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이영환·한영숙, 2005; 최형성, 2002).

따라서 양육실태 인식과 관련해서는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후속출산과 관련된 거시적 변수 - 지역경제적 특성 변수

한편, 이 연구에서는 후속출산 의도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적 특성’ 변수의 영향에 특히 주목한다. ‘지역사회’ 혹은 ‘거주지역 공동체’는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으로서(Bronfenbrenner, 1995), 개인과 가족을 이해하고 강화하는 요소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개념은 ‘개인과 가정을 둘러싼 지리적 환경’이란 것에서부터 더욱 확대되어 왔다. Voydanoff(2006)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정의할 때 ‘지리적 공간성’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과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바라봄에 있어서는 지역의 범위와 크기 외에도 상호의존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 나아가 일정한 지역이 그 내부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영향을 주는 관계 및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영금, 2007). 특히 지역사회는 한 지역에 더 잡아 살고 있는 개인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맥락효과(Context Effect)’란 점에서(정민수·조병희, 2007), 최근에는 사회학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서의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Davies & Herbert, 1993; Leventhal & Brooks-Gunn, 2000; Schefer-McDaniel, 2008).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개인과 가족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도 미시적 특성과 지역사회 관련 특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Kim과 동료들(2010)은 청소년의 신체적 활동 및 장시간 앉아 있는 습성이라는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특성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Maimon과 동료들(2010) 역시 뒤르켐의 자살론과 사회통제론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살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효과를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노신애·진미정(2012)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고, 김진희·이상록(2012)은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이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련된 보다 거시적 특성이 자살 등의 청소년 문제,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스트레스 문제 등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출산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상당부분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별 인식, 그 중에서도 양육친화적 시설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각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거나(류명지, 2008; 박미옥, 2010; 류명지·문춘걸, 2011),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출산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성낙일·박선권, 2012)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히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환경’이란 객관적 특성이 후속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것처럼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 지역별 어머니의 취업률 같은 객관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의 2009년 제2차년도 데이터와 2012년 제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전국 6개 권역별<sup>7)</sup>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008년 4~7월에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서 조사 참여에 동의한 표본 중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2008년도 한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주양육자인 어머니 등이 응답하였고, 질문지에는 가구의 주요 정보인 주거지역, 2008년 출생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이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2009년(제2차년도) 데이터는 2008년 조사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후속조사를 진행해 구성되었다. 2차년도 응답자수는 1904명으로, 1차년도에 비해 174명 감소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출산계획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산 계획이 있다’ 혹은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명확히 응답한 1,6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2009년의 경우에는 출생아동이 만1세이며, 조사시점 당시의 자녀수가 후속출산 의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 집단에서 현재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743명과 2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933명을 두 집단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2012년(제5차년도) 데이터의 응답자수는 1703명으로 1차년도에 비해 375명, 2차년도에 비해 201명 감소하였다. 후속출산 계획에 대해 명확히 응답한 응답자수는 총 1501명이고 이 중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명(약 10%)이었다.

한편 거주지역과 관련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데이터는 2014년부터 기존의 6개 광역권역별 항목 이외에 16개 시도별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16개 시도별로 지역특성을 파악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 사례수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데이터에서 출산계획이 있다는 전체 응답

7)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자수와 시도수를 비교하면, 한 지역당 평균 9.5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sup>8)</sup> 둘째, 표본의 대표성이란 점에서 볼 때 2014년부터 새롭게 제공된 시도별 지역에 따른 응답자수 비율은 한국의 실제 지역별 인구비율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sup>9)</sup> 이것은 처음 아동패널연구가 6개 광역권역별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및 분석의 타당성을 고려해 기존의 6개 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변수화해 살펴본다.

## 2. 측정도구

### 가. 종속변수 : 후속출산계획 여부

후속출산계획 여부는 2008년 자녀를 출산하여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이후의 추가적인 출산 의도를 묻는 것이다. 아동패널연구 데이터에는 후속출산계획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에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잘 모르겠음’은 후속출산계획에 대해 미결정된 상태로 보고 이러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낳겠음’은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낳지 않겠음’은 후속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 나. 독립변수

#### 1)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별 월 평균소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로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소비성 지출’과 ‘자녀를 위한 비소비성 지출’을 합산한 양육비 값을 월평균가구소득으로 나누었다.

한편, 가구별 월평균소득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상치(outlier)의 처리가 통계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상치의 처리방법으로는 ‘제거(trimming)’와 ‘변환(winsorizing)’이

8) 2012년 후속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수가 강원도의 경우 1명, 인천의 경우 4명에 불과하다.

9) 예를 들어 2012년 출산계획 유무를 밝힌 응답자수 중 부산(2012년 말 기준으로 인구수 약 350만 명)의 응답자수(87명)가 대구(2012년 말 기준 약 250만 명)의 응답자수(112명)보다 작다.

활용된다. 전자는 설문응답자가 응답오기나 일관성 없는 응답 등의 경우에, 후자는 응답상의 오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정규분포성을 벗어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2차년도와 5차년도 모두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데이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월평균 소득을 높게 응답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제거보다는 변환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가구별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Winsorizing 기법<sup>10)</sup>을 활용해 이상치를 변환하였다.<sup>11)</sup>

## 2) 문화적 가치관 변수

문화적 가치관 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부각되었던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 ‘양육신념-부모 책임’, ‘기대자녀성별 유무’를 살펴보았다.

먼저 2009년의 경우,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은 자녀관을 정서적 자녀관과 도구적 자녀관으로 구분한 선행연구(정혜은·진미정, 2008)에 기반하여 어머니용 질문지의 8번 질문을 이용하였다. 1)~3)의 3문항은 ‘정서적 가치’로, 4)~7)의 4문항은 ‘도구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을 위해 각 항목의 응답치값을 합산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변환했다.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문항간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현재 자녀가 1명인 집단에서는 각각 0.679, 0.724였고, 현재 자녀가 2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0.703, 0.723로 나타났다.

‘양육신념: 부모의 책임’은 어머니용 질문지 9번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응답과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자녀의 성별유무’에 대해서는 어머니용 질문지 7-1번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딸·아들 구분없이’, ‘딸·아들 구분해서 아들 ○명 딸 ○명’, ‘딸·아들 구분없이 동성으로’, ‘잘 모르겠음’과 ‘기타’로 응답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잘 모르겠음’과 ‘기타’를 제외하고 기대자녀의 성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2009년의 경우, 기대성별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자녀수가 1명인 집단에서는 47.1%, 2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42.9%였다.

10) 이 기법은 데이터 탐색과정에서 이상치로 판단되는 케이스의 해당 수치들, 정상범위 영역에 있는 마지막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11)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대해 winsorizing 변환한 것이 아닌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제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지출비용도 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 대한 질문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제외하고, 다른 두 변수만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머니용 질문지의 15번 문항, ‘기대자녀의 성별유무’에 대해서는 7-1번 문항을 활용했다.

### 3) 양육실태 인식 변수

양육실태 변수로는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를 살펴보았다.

양육스타일과 관련해 2009년 데이터에서는 어머니용 질문지의 26번 응답을 활용했다. 양육스타일은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를 토대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이며,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의 응답치를 합산한 뒤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한 문항간내적일치도는 현재 자녀가 1명인 집단은 0.842, 2명 이상인 집단에서 0.828였다. 2012년 데이터에서는 어머니용 질문지 14번의 12개 문항을 활용하였고, 문항간내적일치도는 0.779이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해 2009년 질문지 25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의미하며, 김기현·강희경(1997)의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중 일부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각 문항을 합산한 뒤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간내적일치도의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값이 자녀가 1명인 집단은 0.848, 2명 이상인 집단 0.849로 나타났다. 2012년 질문지에서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13번 응답을 활용했고 Cronbach’s  $\alpha$ 계수값은 0.881였다.

2009년과 2012년 질문지 4번 남편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 정도로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의 총 4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는 각 문항을 합산한 뒤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문항간내적일치도의 경우, 2009년 자녀가 1명인 집단에서는 0.809, 2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0.801이었고 2012년 자료에서는 0.801이었다.

#### 4) 지역경제적 특성 변수

지역경제적 특성 변수로는 지역별 연평균 가구소득,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을 살펴 보았다.

먼저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료를 활용했다. 하나는 아동패널 데이터에서의 가구별 월평균소득 응답값을 6개 권역별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6개 권역별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서는 2010년부터 인구총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구추계 현황을<sup>12)</sup>, 그리고 2012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가구별 평균 경상소득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sup>13)</sup> 특히 지역별 가구 평균 소득 자료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감안해 매년 보완이 이뤄지는 자료로서 정부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공식자료이며, 지역사회의 객관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모집단 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따라서 비록 3년의 간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지역의 객관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에 2009년 자료의 분석에서는 패널데이터의 변환자료와 2012년 통계청 자료를 각각의 모형으로 나누어 모두 활용했다. 2012년 자료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자료를 모두 활용했다. 두 자료 역시 아동패널연구의 6개 권역별로 재구성했다.

통계청의 거시적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후속출산 의도라는 ‘미시적 차원의 변수’에 관해 지역적 특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서로 층위가 다른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의 표본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기에 분석타당성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서로 층위가 다른 ‘개인’과 ‘지역’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지역적 특성이 개인적 인식과 결정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역적 특성이 고려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해, 지역에 대한 개인의 ‘인식’ 문제를 평균적인 지역 특성으로 전환해서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집단에 관한 분석에서 A집단이 아닌 B집단의 인식이나 특성 데이터를 끌어와 분석에 이용한다면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은 지역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아닌 객관적 특성 내지 지표에 관한 것이다. 더욱

12)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참조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5&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5&conn_path=I3)).

13)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참조.

이 통계청의 자료는 특정 표본의 특성자료라기 보다는 모집단의 객관적 특성자료이기  
에, 각 개인이 거주하는 환경 그 자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에서 오히려 타당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패널연구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하는 것에 대  
해 분석타당성의 의문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이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  
해 지역적 특성에 관한 변수들을 생성하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  
인적 변수를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 변수로 변환했기 때문에 이미 미시적 변수와 거시  
적 변수 자체로 상호연관성이 높아질 우려, 즉 nested data 관련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의 자료를 활용해 집단적 수준의 자  
료를 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자의 특성이 절대적으로 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개인적 수준의 특성이 집합적 수준의 특성으로 환원될 ‘가  
능성’은 높을 수 있어도, 그것은 가능성일 뿐 ‘필연성’은 아니므로 실제 분석결과를 통  
해 그 환원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분석결과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이나  
어머니 취업률이 의미있는 변수로 판명될 때 동시에 개별 응답자의 가구소득이나 취  
업여부도 의미있다고 나타나면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로 별개로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nested data의 문제는 그만  
큼 영향력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은 아동패널 데이터에 나타난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기반으로 각 권역별 어머니 취업률을 계산해 활용하였다.<sup>14)</sup>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0.0 program을 사용했다. 자녀수에 따른 집단별 특  
성 및 권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후속출산 의도와 미시적 변수 및 거시적 지역특성 변수 간의 상대적 관계,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거시적 변수에 관해서  
도 미시적 변수를 살펴볼 때와 같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요구하게 되면 실제로는

14) 한국노동패널연구나 통계청 자료 등에는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관련 자료는 있지만,  
어머니의 취업률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출산 및 양육 연령대 여성의  
취업률 수준과 양상은 전체 여성취업률 및 양상과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청 등의 거시데이터  
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어머니 취  
업률에 대해서는 아동패널연구의 자료를 활용했다.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영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p < .10$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 IV. 연구결과

### 1. 2009년(제2차년도) 분석결과

#### 가. 자녀수가 1명인 경우

2009년 데이터에 대해 자녀수가 1명인 집단과 2명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2〉 자녀수가 1명인 집단과 2명 이상인 집단의 기술통계분석 (2009)

| 변 인                      | 자녀수가 1명인 집단<br>(N=743) |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집단<br>(N=933) |
|--------------------------|------------------------|---------------------------|
|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 후속출산의도가 있다는 응답자율         | 74.29%                 | 11.36%                    |
| <b>사회경제적 변수</b>          |                        |                           |
| 모의 연령(세)                 | 30.75(3.61)            | 33.30 (3.375)             |
| 모의 취업률                   | 32.47%                 | 29.17%                    |
|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 328.14(155.92)         | 334.71(151.87)            |
|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 17.67%                 | 12.84%                    |
| <b>문화적 가치관 변수</b>        |                        |                           |
| 정서적 가치(5점 만점)            | 4.34(.59)              | 4.29(.59)                 |
| 도구적 가치(5점 만점)            | 2.90(.78)              | 2.97(.76)                 |
|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는 응답자율 | 46.96%                 | 51.19%                    |
| 기대자녀 성별이 있다는 응답자율        | 43.06%                 | 42.33%                    |
| <b>양육실태 인식 변수</b>        |                        |                           |
| 양육스타일(평균) (5점 만점)        | 3.93(.51)              | 3.87(.48)                 |
| 양육스트레스(평균) (5점 만점)       | 2.64(.64)              | 2.80(.63)                 |
| 남편의 양육참여(평균) (5점 만점)     | 3.74(.91)              | 3.56(.87)                 |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취업률은 약 30% 내외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30만원 내외,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은 약 13~18% 수준이었다.

한편,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에 관하여 아동패널연구의 자료를 재구성해 사용한 경



우(모형 1-1)와, 통계청의 2012년 자료를 사용한 경우(모형 1-2)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자녀수가 1명인 경우 후속출산 의도 관련 분석 (2009)

| 변 인                        | 모형 1-1<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아동패널<br>데이터 사용) |       |        |        | 모형 1-2<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통계청<br>데이터 사용) |       |        |        |
|----------------------------|---------------------------------------|-------|--------|--------|--------------------------------------|-------|--------|--------|
|                            | B                                     | S.E.  | Wald   | Exp(B) | B                                    | S.E.  | Wald   | Exp(B) |
| 상 수                        | 2.100                                 | 1.997 | 1.106  | 8.167  | 2.436                                | 2.041 | 1.423  | 11.422 |
| <b>사회경제적 변수</b>            |                                       |       |        |        |                                      |       |        |        |
| 모의 연령                      | -.167**                               | .030  | 30.040 | .844   | -.166***                             | .030  | 29.852 | .847   |
| 모의 취업여부(1)                 | .079                                  | .260  | .092   | 1.082  | .069                                 | .261  | .069   | 1.071  |
| 월평균 가구소득                   | .000                                  | .001  | .211   | 1.000  | .000                                 | .001  | .155   | 1.000  |
|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br>비율          | -.949                                 | 1.025 | .858   | .387   | -.941                                | 1.023 | .847   | .390   |
| <b>문화적 가치관 변수</b>          |                                       |       |        |        |                                      |       |        |        |
| 정서적 가치                     | .525**                                | .204  | 6.647  | 1.691  | .531**                               | .204  | 6.741  | 1.700  |
| 도구적 가치                     | .649***                               | .155  | 17.565 | 1.914  | .648***                              | .155  | 17.524 | 1.912  |
| 부모책임 인식 유무(2)              | -.060                                 | .217  | .076   | .942   | -.063                                | .217  | .083   | .939   |
| 기대자녀 성별 유무(3)              | .289                                  | .218  | 1.751  | 1.335  | .292                                 | .218  | 1.785  | 1.339  |
| <b>양육실태 인식 변수</b>          |                                       |       |        |        |                                      |       |        |        |
| 양육스타일                      | -.125                                 | .248  | .254   | .883   | -.122                                | .248  | .240   | .885   |
| 양육스트레스                     | -.135                                 | .194  | .486   | .873   | -.132                                | .195  | .460   | .876   |
| 남편의 양육참여                   | .017                                  | .120  | .020   | 1.017  | .018                                 | .120  | .022   | 1.018  |
| <b>지역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b>      |                                       |       |        |        |                                      |       |        |        |
| 지역별 월평균<br>가구소득            | .000                                  | .004  | .002   | 1.000  | .000                                 | .000  | .133   | 1.000  |
| 지역별 모 취업률                  | .037 <sup>†</sup>                     | .024  | 2.454  | 1.038  | .038*                                | .019  | 3.913  | 1.039  |
| $\chi^2(df)$               | 91.537(13)***                         |       |        |        | 91.669(13)***                        |       |        |        |
| Cox & Snell R <sup>2</sup> | .141                                  |       |        |        | .141                                 |       |        |        |
| Nagelkerke R <sup>2</sup>  | .211                                  |       |        |        | .211                                 |       |        |        |
| -2 Log L                   | 573.159                               |       |        |        | 573.028                              |       |        |        |
| 분류정확도                      | 78.1%                                 |       |        |        | 78.1%                                |       |        |        |

주: (1) 가변수 (0=미취업, 1=취업)  
 (2) 가변수 (0=부모희생 필요없다, 1=부모희생 필요하다)  
 (3) 가변수 (0=기대성별 없다, 1=기대성별 있다)

\*\*\*  $p < .001$ , \*\*  $p < .01$ , \*  $p < .05$ , <sup>†</sup>  $p < .10$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 ‘모(母)의 연령’, 문화적 가치관 변수 중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그리고 지역적 특성 관련 변수 중에서는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이 후속출산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의 어머니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적 특성 중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에 대해서는 아동패널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p=.099$ )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경우( $p=.048$ ) 모두에서 후속출산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이 증가할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해당 거주 지역에서 어머니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수나 취업 가능성 혹은 기존에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력유지 용이성이 1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둘째 아이를 갖고자 하는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표 4>에서와 같이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모의 연령’, 문화적 가치관 변수 중에서 ‘부모의 책임 인식’, 그리고 지역적 특성 관련 변수 중에서는 ‘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이 후속출산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 있다고 인식할수록, 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감소하는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자녀수가 1명인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 그리고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는 모형 2-1과 2-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녀수가 2명인 경우 후속출산 의도 관련 분석 (2009)

| 변 인                   | 모형 2-1<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아동패널<br>데이터 사용) |       |        |          | 모형 2-2<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통계청<br>데이터 사용) |       |        |          |
|-----------------------|---------------------------------------|-------|--------|----------|--------------------------------------|-------|--------|----------|
|                       | B                                     | S.E.  | Wald   | Exp(B)   | B                                    | S.E.  | Wald   | Exp(B)   |
| 상 수                   | 7.680                                 | 2.363 | 10.563 | 2164.425 | 8.189                                | 2.501 | 10.720 | 3602.045 |
| <b>사회경제적 변수</b>       |                                       |       |        |          |                                      |       |        |          |
| 모의 연령                 | <b>-.247***</b>                       | .041  | 37.192 | .781     | <b>-.249***</b>                      | .040  | 37.856 | .780     |
| 모의<br>취업여부(1)         | -.121                                 | .297  | .167   | .886     | -.102                                | .297  | .119   | .903     |
| 월평균<br>가구소득           | .002                                  | .001  | 2.145  | 1.002    | .001                                 | .001  | 1.938  | 1.001    |
| 가구소득 대비<br>양육비 비율     | -.332                                 | 1.342 | .061   | .718     | -.413                                | 1.351 | .093   | .662     |
| <b>문화적 가치관 변수</b>     |                                       |       |        |          |                                      |       |        |          |
| 정서적 가치                | -.080                                 | .226  | .125   | .923     | -.068                                | .224  | .092   | .934     |
| 도구적 가치                | .167                                  | .172  | .943   | 1.182    | .157                                 | .172  | .830   | 1.170    |
| 부모책임 인식<br>유무(2)      | <b>.604*</b>                          | .252  | 5.715  | 1.829    | <b>.595*</b>                         | .252  | 5.577  | 1.814    |
| 기대자녀 성별<br>유무(3)      | .173                                  | .241  | .515   | 1.188    | .178                                 | .241  | .546   | 1.194    |
| <b>양육실태 인식 변수</b>     |                                       |       |        |          |                                      |       |        |          |
| 양육스타일                 | -.285                                 | .293  | .948   | .752     | -.288                                | .293  | .965   | .750     |
| 양육<br>스트레스            | -.057                                 | .224  | .065   | .944     | -.058                                | .224  | .068   | .943     |
| 남편의<br>양육참여           | .098                                  | .148  | .443   | 1.103    | .093                                 | .148  | .394   | 1.097    |
| <b>지역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b> |                                       |       |        |          |                                      |       |        |          |
| 지역별 월평균<br>가구소득       | <b>-.010*</b>                         | .004  | 5.476  | .990     | <b>-.001*</b>                        | .000  | 4.441  | .999     |
| 지역별 모<br>취업률          | .043                                  | .025  | 2.855  | 1.044    | .014                                 | .023  | .376   | 1.014    |
| $\chi^2(df)$          | <b>67.975(13)***</b>                  |       |        |          | <b>67.077(13)***</b>                 |       |        |          |
| Cox & Snell $R^2$     | .085                                  |       |        |          | .084                                 |       |        |          |
| Nagelkerke $R^2$      | .164                                  |       |        |          | .162                                 |       |        |          |
| -2 Log L              | 490.478                               |       |        |          | 491.375                              |       |        |          |
| 분류정확도                 | 88.1%                                 |       |        |          | 88.1%                                |       |        |          |

주: (1) 가변수 (0=미취업, 1=취업)  
 (2) 가변수 (0=부모희생 필요없다, 1=부모희생 필요하다)  
 (3) 가변수 (0=기대성별 없다, 1=기대성별 있다)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 다. 2009년 데이터에 대한 종합분석

2009년은 아동패널연구의 2차년도로서, 2008년에 출생한 자녀가 만1세가 되는 해이다. 어머니의 연령도 다른 연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후속출산을 의도할 가능성도 다른 조사연도보다 높은 해라 할 수 있다. <표 2>과 <표 4>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지역사회가 어머니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이 높은지 여부는 둘째 자녀의 출산의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셋째 이하 자녀의 출산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셋째 이하 자녀의 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셋째 이하 자녀의 출산 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책임 인식’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모형 2-1과 모형 2-2 모두에서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책임을 낮게 평가할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이 높은 곳에 살면서, 자녀를 위한 희생보다는 본인의 행복을 보다 높이 평가하는 자기중심적(부모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셋째 이하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6개 권역별 지역특성과 연결시켜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아동패널연구의 데이터 및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권역별 특성 및 순위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서울권과 경인권 등 수도권에서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리고 후속출산 의도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렇게 본다면, “소득수준이 높고 자기중심적(부모중심적) 가치관이 보다 우세한 수도권 지역의 어머니일수록, 특히 셋째 이하 자녀의 후속출산 의도가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5> 권역별 지역적 특성 (2009) (자녀수 구분 없음)

|           | 지역별 연평균<br>가구소득(1)<br>(순위)<br>(단위:만원) | 지역별 모<br>취업률 (순위)<br>(단위:%) | 자녀를 위한<br>부모희생<br>응답율<br>(순위)<br>(단위:%) | 후속출산<br>의도자 비율<br>(순위)<br>(단위:%) |
|-----------|---------------------------------------|-----------------------------|-----------------------------------------|----------------------------------|
| 서울권       | 4855.50 (1)                           | 37.19 (2)                   | 45.27 (6)                               | 36.3 (6)                         |
| 경인권       | 4529.95 (2)                           | 27.50 (5)                   | 48.04 (5)                               | 35.6 (5)                         |
| 부산/울산/경남권 | 4031.39 (3)                           | 32.60 (3)                   | 50.18 (3)                               | 42.8 (2)                         |

(표 5 계속)

|           | 지역별 연평균<br>가구소득(1)<br>(순위)<br>(단위:만원) | 지역별 모<br>취업률 (순위)<br>(단위:%) | 자녀를 위한<br>부모희생<br>응답율<br>(순위)<br>(단위:%) | 후속출산<br>의도자 비율<br>(순위)<br>(단위:%) |
|-----------|---------------------------------------|-----------------------------|-----------------------------------------|----------------------------------|
| 대구/경북권    | 3872.54 (4)                           | 20.79 (6)                   | 53.17 (2)                               | 42.4 (3)                         |
| 대전/충청/강원권 | 3750.89 (5)                           | 30.57 (4)                   | 55.28 (1)                               | 37.2 (4)                         |
| 광주/전라권    | 3663.93 (6)                           | 38.14 (1)                   | 48.70 (4)                               | 46.9 (1)                         |

주: (1) 통계청(2012) 자료

## 2. 2012년(제5차년도) 분석결과

2012년 데이터에 대해서는 2009년 데이터 분석에서와 달리, 자녀수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이미 제1차년도인 2008년 자녀 출산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2012년 조사 당시의 후속출산 의도가 몇 번째 순위의 자녀에 대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출산자녀가 첫째라 하여도, 2012년 이전에 이미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2년 응답에서의 후속출산 의도가 둘째 자녀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2012년 전체 응답자 중 후속출산 의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의 약 10% 수준인 15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6개 권역별로 구분해 살펴 봐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자녀수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통계적 타당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데이터에 대해서는 2009년 데이터의 분석결과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비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녀수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sup>15)</sup>,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변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률은 20% 이상 상승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00만 원 정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은 11.5~16.3% 정도 증가했다. 2008년 출생한 자녀가 만5세 정도의 유아로 성장한 만큼, 어머니의 사회활동도 증가하면서 가구소득도 증가하고 자녀양육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5) <표 2> 참조.

〈표 6〉 기술통계분석 (2012)

| 변 인                         | (N=1501)       |
|-----------------------------|----------------|
|                             | 평균(표준편차)       |
| 후속출산의도가 있다는 응답자율            | 10.13%         |
| <b>사회경제적 변수</b>             |                |
| 모의 연령(세)                    | 34.79(3.70)    |
| 모의 취업률                      | 57.04%         |
|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 427.04(175.27) |
|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 29.16%         |
| <b>문화적 가치관 변수</b>           |                |
|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는<br>응답자율 | 51.56%         |
| 기대자녀 성별이 있다는 응답자율           | 39.92%         |
| <b>양육실태 인식 변수</b>           |                |
| 양육스타일(평균) (5점 만점)           | 3.51(.39)      |
| 양육스트레스(평균) (5점 만점)          | 2.73(.66)      |
| 남편의 양육참여(평균) (5점 만점)        | 3.57(.79)      |

한편,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에 관하여 아동패널연구의 자료를 재구성해 사용한 경우(모형 3-1)와, 통계청의 2012년 자료를 사용한 경우(모형 3-2)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후속출산 의도 관련 분석 (2012)

| 변 인               | 모형 3-1<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아동패널<br>데이터 사용) |       |        |          | 모형 3-2<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통계청<br>데이터 사용) |       |        |          |
|-------------------|---------------------------------------|-------|--------|----------|--------------------------------------|-------|--------|----------|
|                   | B                                     | S.E.  | Wald   | Exp(B)   | B                                    | S.E.  | Wald   | Exp(B)   |
| 상 수               | 8.720                                 | 2.687 | 10.532 | 6125.315 | 9.092                                | 2.671 | 11.589 | 8880.755 |
| <b>사회경제적 변수</b>   |                                       |       |        |          |                                      |       |        |          |
| 모의 연령             | <b>-.149***</b>                       | .027  | 30.147 | .862     | <b>-.149***</b>                      | .027  | 29.977 | .862     |
| 모의<br>취업여부(1)     | .164                                  | .205  | .643   | 1.178    | .167                                 | .205  | .662   | 1.181    |
| 월평균<br>가구소득       | <b>-1.129***</b>                      | .267  | 17.827 | .324     | <b>-1.105***</b>                     | .265  | 17.344 | .331     |
| 가구소득 대비<br>양육비 비율 | <b>-4.385***</b>                      | .901  | 23.712 | .012     | <b>-4.343***</b>                     | .899  | 23.349 | .013     |

(표 7 계속)

| 변 인                        | 모형 3-1<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아동패널<br>데이터 사용) |       |       |        | 모형 3-2<br>(지역별 가구소득으로 통계청<br>데이터 사용) |       |       |        |
|----------------------------|---------------------------------------|-------|-------|--------|--------------------------------------|-------|-------|--------|
|                            | B                                     | S.E.  | Wald  | Exp(B) | B                                    | S.E.  | Wald  | Exp(B) |
| <b>문화적 가치관 변수</b>          |                                       |       |       |        |                                      |       |       |        |
| 부모책임 인식<br>유무(2)           | .098                                  | .191  | .266  | 1.103  | .095                                 | .191  | .250  | 1.100  |
| 기대자녀 성별<br>유무(3)           | .308                                  | .192  | 2.579 | 1.361  | .306                                 | .192  | 2.538 | 1.358  |
| <b>양육실태 인식 변수</b>          |                                       |       |       |        |                                      |       |       |        |
| 양육스타일                      | -.244                                 | .264  | .854  | .784   | -.245                                | .264  | .865  | .783   |
| 양육스트레스                     | <b>-.429*</b>                         | .165  | 6.720 | .651   | <b>-.427*</b>                        | .165  | 6.697 | .652   |
| 남편의<br>양육참여                | .210                                  | .131  | 2.566 | 1.234  | .210                                 | .131  | 2.560 | 1.234  |
| <b>지역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b>      |                                       |       |       |        |                                      |       |       |        |
| 지역별 월평균<br>가구소득            | .004                                  | .004  | 1.123 | 1.004  | .000                                 | .000  | .524  | 1.000  |
| 지역별 모<br>취업률               | 3.298                                 | 2.484 | 1.762 | 27.049 | 4.029                                | 2.625 | 2.356 | 56.196 |
| $\chi^2(df)$               | <b>97.024(11)***</b>                  |       |       |        | <b>96.415(11)***</b>                 |       |       |        |
| Cox & Snell R <sup>2</sup> | .070                                  |       |       |        | .069                                 |       |       |        |
| Nagelkerke R <sup>2</sup>  | .145                                  |       |       |        | .144                                 |       |       |        |
| -2 Log L                   | 783.16                                |       |       |        | 783.777                              |       |       |        |
| 분류정확도                      | 89.9%                                 |       |       |        | 89.9%                                |       |       |        |

주: (1) 가변수 (0=미취업, 1=취업)

(2) 가변수 (0=부모희생 필요없다, 1=부모희생 필요하다)

(3) 가변수 (0=기대성별 없다, 1=기대성별 있다)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모의 연령’과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이, 양육실태 인식 변수 중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후속출산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이 낮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은 여전히 후속출산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2009년 자료의 분석에서 의미가 있었던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이나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 자료의 분석에서는 한번도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양육 스트레스’가 5차년도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 역시 모형 3-1과 모형 3-2 모두에서 이 연구의 유의수준 유의수준  $p < .10$ 에 거의 근사한 수치(각각  $p = .110, .109$ )를 보였다는 점에서 볼 때,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참여를 함께 고려하면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부담의 완화가 후속출산 의도에 있어 중요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이 낮아질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석 결과는 반대로 즉, 후속출산 의도 승산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에는 이미 2008년에 출생한 자녀가 만5세로 성장하고 어머니의 연령도 증가한 만큼, “이미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감수한 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부모일수록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추가 출산을 의도하지 않고, 그 대신 부모 자신과 기존 자녀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더 투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제5차년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자녀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성장발달해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참여 같은 정신적·육체적 육아부담 감소가 중요해지면서도, 더 이상의 추가출산보다는 자신과 기존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에 보다 관심을 쏟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VI. 논의 및 제언

출산은 다양한 원인 및 현상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 문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적, 가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출산정책 연구를 진행했지만, 자녀수에 대한 결정은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역 다른 어머니들의 취업여건 내지 경력유지 수준, 지역의 평균소득수준 같은 경제적 특성 역시 자녀수 결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요인의 영향력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률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어머니와 기존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라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여러 관련요인의 영향력 변화 역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사회경제적 변수, 문화적 가치관 변수, 양육실태 변수 이외에 ‘지역별 월평균소득’과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이라는 지역경제적 특성 변수를 추가해 그 거시적·객관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생애주기에 따라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2009년(제2차년도), 2012년(제5차년도) 데이터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오랜 기간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규범력이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2009년 제2차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수가 1명인 집단과 2명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사회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수가 1명인 집단의 경우, 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의 어머니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후속출산 의도가 높아졌다. 특히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이 증가할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각 지역사회가 여성의 취업, 특히 첫 자녀출산 후 어머니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첫 자녀 출산 후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이 둘째 자녀 출산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첫 자녀 출산 후 경험하는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이 둘째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전지혜, 2013; 한지연, 2014; 현대경제연구원, 2014).<sup>16)</sup> 구직활동중인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첫 자녀 출산으로 발생할 구직활동 중단이 부담으로 작용한다(이인순, 2011). 이것은 취업단절이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가능성의 우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째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와 취업에 유리한 여건이 지역사회에 조성되어 있어 그 지역의 기혼여성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주저함의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혼여성을 위한 일자리의 확대 및 취업모에 대한 배려가 둘째 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둘째,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집단의 경우, 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를 위한 부모

16)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한 출산율 부진의 원인에 관한 설문분석에 따르면, ‘출산 후 복직의 어려움’과 ‘출산 후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아이 맡길 곳의 부재’와 함께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성 인식이 출산율 부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의 희생책임을 인식할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후속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낮아졌는데, 이것은 ‘일정 수준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사회에서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가 출산률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신영수, 2003)의 결과와 부합한다. 나아가 부모의 희생책임 인식과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을 권역별 특성과 함께 해석해 보면,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과 자기중심적(부모중심적) 가치관 수준이 높은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셋째 이하의 자녀를 더 낳고자 하는 의도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녀수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할 때 어머니의 연령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는 둘째 자녀에 대한 후속출산 의도에만 영향을 주었고, 셋째 이하 자녀의 출산 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의무 인식은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집단에서만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둘째 자녀를 출산하기까지는 자녀에 대해 헌신적 가치관을 갖는지 아니면 부모 본인에게 보다 무게를 둔 자기중심적(부모중심적) 가치관을 갖는지 여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셋째 이하 자녀를 갖는데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비록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2명에 못 미치지만, 여전히 둘째 자녀 출산까지는 부모의 희생의무 인식에 관계없이, 자녀의 가치(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규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자녀가 성장하고 어머니의 연령도 높아지면서,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변화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후속출산 의도는 낮아진다. 특히 연령변화와 관련지어 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연령이 만5세로 증가함에 따라 양적으로 축적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취학 준비 등과 관련해 변화한다. 따라서 정신적·육체적 측면에서의 양육부담이 이 시기에는 후속출산 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정책적으로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률이 낮아질수록 후속출산 의도가 낮아진다. 자녀양육비 부담률의 감소가 주로 가구소득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면, 특히 가구소득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회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Becker와 Lewis(1973)가 언급한 것처럼 가구소득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질적수요를 증가시켜 양육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따른 한계효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기존의 자녀와 부모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Leibenstein, 1974). 즉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양육비를 다른 가정보다 높게 책정하고, 기존 자녀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 추가출산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저출산을 결정한 가구는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일반소비지출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차경옥, 2005)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부모 자신과 관련해서도 Becker(1992)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미 자녀를 만5세 수준으로 양육하는데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한 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부모일수록 스스로의 경력과 미래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출산을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발달하고 부모의 연령도 증가함에 따라 기회비용 차원에서 후속출산보다는 부모 자신과 기존 자녀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의 자녀수가 1명인 가정과 2명 이상인 가정에서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특히 지역경제적 특성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성있는 출산을 제고 정책을 위해서는 자녀수와 지역 등 집단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면서도 적절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출산을 장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자녀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사회생활 복귀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보다는 ‘일자리의 풍부함과 양’, 즉 ‘지역별 어머니 취업률’이 둘째 자녀의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볼 때,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사회생활 복귀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유자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혜택 등을 강화하면서 첫 출산 후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출산을 제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주의 인식을 바꾸고 근무풍토를 개선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차이를 볼 때 수도권보다는 출산의도의 증진 여력이 보다 큰 지방권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도 높고, 지역주민의 권리의식도 높은 만큼 행정지원 요구도도 높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수준이나 직장여성을 위한 지원여건, 양육시설여건 등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특히 셋째 이하 자녀의 출산의도는 지방권보다 낮았다. 특히 재정자립도 및 출산·양육 여건의 수준차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

도권보다 지방권에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하여금 셋째 이하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보다는, 1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보다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셋째 이하 자녀의 후속출산 의도는 주로 지역 전체의 경제적 수준 내지 개개인의 인식 및 가치관에 대한 것으로써 변화시키기에 재정부담도 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반면, 둘째 자녀의 후속출산 의도는 출산여성의 재취업이나 유연 근무제 같은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둘째 자녀까지는 낳는 것이 좋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정리한다면, 전국적으로는 유자녀 어머니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제 후속출산 여부가 아닌 후속출산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다소 광범위한 6개 광역권역으로 지역구분이 이루어져 지역적 특성과 차이가 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이 의미있는 변수로 판명될 때 개별 응답자의 가구소득도 동시에 의미있게 판명되는 등의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nested data의 문제 가능성을 보다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HLM) 분석을 시행하거나 6개 광역권역별로 따로 분석을 진행해 승산(odds) 값을 비교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했던 지역사회 의 거시적·객관적 특성과 그 영향력을 파악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기여라 할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구분했을 때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규명하고, 부모와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서도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김기현·강희경(1997). 논문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 35, 5, 141-150.
- 김선희(2014).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 2, 1-34.
- 김승권·김민자(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 2, 97-116.
- 김종백·유은(2010).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회, 381-395.
- 김진희·이상록(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4, 2, 365-387.
- 김현숙(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 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 3, 107-135.
- 노신애·진미정(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 3, 135-149.
- 도남희(2011). 만 1세 영아가구의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5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자료집.
- 류명지(2008). 시도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출산율 분석 :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과 출산율.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명지·문춘걸(2011). 보육시설 수탁률과 여성 고용률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 : 광역시·도 단위의 패널자료 분석. 경제연구, 32, 2, 67-92.
- 류연구(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21, 3, 233-261.
- 마미정(2007).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현주·김은지(2011). 출산 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 4, 198-222.
- 박미옥(2010). 저출산 시대에 한국 보육정책의 실태분석 :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 1, 55-89.

- 박석희(200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 14호.
- 방경숙(2007).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모자보건관련 특성, 양육부담감, 사회적지지에 대한 사회계층별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3, 4, 390-398.
- 성낙일·박선권(2012).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인구학, 35, 2, 73-101.
- 손승영(2007). 한국 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 논의. 담론 201, 10, 1, 207-243.
- 신영수(2003). 한국의 지역별 출산율 수렴과 외부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11, 95-118.
- 신지현(2013). 유배우 취업여성의 재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최명섭·김의준(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연구, 10, 2, 33-47.
- 안윤숙·이상호(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3, 227-258.
-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 1, 99-121.
- 이삼식·장경섭·김선엽·이병훈 외 4인(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2011-16).
- 이영환·한영숙(2005). 초임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 연구 출산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1-62.
- 이인순. (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최고은(2010).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됨 관련 변인이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597-616.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아내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법문사.
- 전지혜. (2013).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홍소영·박수경(2013).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33, 1, 259-277.
- 정민수·조병희(2007). 지역사회역량이 주민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2, 153-182.
- 정영금(2007). 지역사회 지원의 지원을 통한 일-가족 균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1, 37-51.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 1, 151-168.
- 조복희·현온강(1994). 논문편: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 5, 97-108.
- 통계청(2014). 2013년 출산통계(확정).
- 차경욱(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 구조 비교 분석. *한국인구학*, 23, 2, 136-148.
- 최요한(2014). 아내의 근로시간과 남편의 가사일 부담이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장영은(2010). 후속출산 비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완결출산으로서의 자녀수를 고려하여.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97- 411.
- 최은영(2011). 후속출산의도 관련 변인 판별분석. 제5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지연(2014). 둘째 자녀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녀 한명을 양육하는 취업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대경제연구원(2014). 출산률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14-6 통권 557호).
- Becker, G. S. (1992), Fertility and the econom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5(3). 185-201.
- Becker, G. S. & Lewis, H.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279-288.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nfenbrenner, U. (1995). Developmental ecology through space and time: A future perspective. In P. Moen, G. H. Elder Jr., & K. Lü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 619 - 6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avies, W. K., & Herbert, D. T. (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An Urban Social Geography*. London: Belhaven Press.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313-327.
- \_\_\_\_\_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 Liu, J. H. Colabianchi, N. & Pate, R. R. (2010), The effect of perceived and structural neighborhood conditions on adolescents'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4(1), 935-942.
-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2), 457-479.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 Maimon, D., Browning, C. R., & Brooks-Gunn, J. (2010), Collective efficacy, Family attachment, and urba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1(3), 307-324.
- Presser, H. (2001). A gender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low fertility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177-183.
- Robinson, W. C. (1997).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over three decades. *Population Studies*, 51, 63-74.
- Schefer-McDaniel, N. (2008), Neighborhood stressors, perceived neighborhood quality and child mental health in New York City. *Health and Place*, 15, 148-155.
- Sohn, S.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 Voydanoff, P. (2006), *Work, Family and Community: Exploring Interconnections*. New York: Psychology Press.

..논문접수 10월 23일 / 수정본 접수 11월 26일 / 게재 승인 12월 13일

..교신저자: 심도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메일 ace4a@daum.net



## Abstract

### **The Impact of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ife Cycle On Mothers'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A Study Combining Microscopic and Macroscopic Variables**

Hyoun-Gu Kang, DoHyun Shim, YunHyun Pack, SoonHyung Yi

To explore effective pro-natalist policy development, this research analyzes the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mbining microscopic and regional variables that affect mothers’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The birth rate in South Korea has fallen to 1.19 in 2013, and developing effective pro-natalist policies is a pragmatic and important issue. Since various causes and phenomenon affect families’ decision on the family size, chang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employment environment for mothers and local average family income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at context, this study combines microscopic and macroscopic variables, and compares changes between 2009(wave2) and 2012(wave5). The key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1) mothers with 1 child are more willing to have additional children if the employment rate of mothers in the residential area is high; (2) mothers with more than 2 children are more willing to have additional children if the local average family income is low and if mothers have stronger sense of egocentrism; and (3) mothers with preschooler tend to set a higher value on the investment for existing child rather than additional childbirth. This study implies that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for mothers and reducing the burden of nurturing are critical, and it is more effective to implement regionally differentiated pro-natalist services.

Key words: Pro-natalism,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Work-family Balance,  
Combining Macroscopic and Microscopic Variables